

#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박태환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200m 금메달을 확정 후 환호하고 있다. 박태환은 14일 광저우시 아오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자 200m 자유형 결승에서 1위로 골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 박태환 자유형 200m '아시아 新' 2연패

### 조오련·최윤희·지상준 이어 네번째 ... 다관왕 시동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써 온 '마린 보이' 박태환(21·단국대)이 아시안게임 수영 영 최다 금메달 기록도 눈앞에 왔다. 박태환은 14일(이하 한국시간) 광저우 아오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80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200m와

400m, 그리고 1500m에서 우승해 3관왕을 차지했던 박태환에게 통산 4번째 금메달이다. 이제 박태환은 한국 수영 사상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기록에 한 개만을 남겨놓게 됐다. 현재 한국 수영 선수 중 최다 금메달리스트는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5개)다. 박태환은 '아시아의 물개'로 이름을 날렸던 고(故) 조오련(4개) 씨와는 이계를 나란히 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 종목은 자유형 200m 외에도 100m와 400m, 그리고 1500m

에 출전한다. 16일 치를 자유형 400m는 2회 연속 금메달이 유력해 이번 대회에서 적어도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은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한국 선수 중 아시안게임 통산 개인 최다 금메달은 양창훈(양궁)과 서정균(승마)이 가져간 6개인데, 박태환이 광저우에서 다시 3관왕을 차지하면 이들과도 동률을 이룰 수 있다.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면 박태환은 아시안게임에 서만 총 8번째(금4, 은1, 동3) 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개인 최다 메달리스트인 한규철(한국)과는 이제 세 개 차가 됐다.

한규철은 1998년 방콕 대회부터 2006년 도하 대회까지 총 11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박태환은 이번에 자유형 200m에서 정상 을 지키면서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네 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 그동안 1970년 방콕, 1974년 테헤란 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2회 연속 2관왕을 차지한 고(故) 조오련 씨를 시작으로 1982년 뉴델리 대회와 1986년 서울 대회에서 여자 배영 100m 및 200m를 석권한 최윤희, 그리고 1990년 베이징 대회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남자 배영 200m 우승을 차지한 지상준 등 세 명만이 아시안게임 2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연합뉴스

### 수력원자력 수원시청과 결승전

내셔널리그 챔피언 진출 김윤식이 각각 한 골씩 넣어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대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대한생명 2010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 14일 대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대진 한수원은 지난 12월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고양 KB국민은행과의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전에서 고양을 2-1로 누르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한수원은 고양과의 4강전에서 전반 초반 상대에게 수비 실수로 인한 심판을 허용했지만, 전반 중반 미드필더 이성운과 후반 중반

올해 후기리그에서 주축한 모습을 보였던 한수원은 이날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전기리그 우승자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한수원은 16일 오후 7시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1차전(홈), 20일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원정)을 통해 강릉시청을 격파하고 올라온 수원시청과 올해 내셔널리그 왕좌를 두고 격돌하게 된다.

도청주 기자  
dclove@ggiibo.com



지난 12-14일 광주시에서 열린 2010 전통중목 전국대회에 대전과 충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전통중목의 진수를 선보였다. 사진은 12일 대회 개회식 모습. 충남도생활체육회 제공

## 대전·충남도, 전통중목 전국대회 '선전'

대전·충남은 씨름 두각을 나타냈다. 대전이 14일 광저우 끝난 2010 전통중목 전국대회에서 궁도를 비롯해 각종 종목마다 열전을 벌이며 전통중목의 진수를 선보였다. 이날 대전·충남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빛고를 광주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대전과 충남선수단이 출전해 되색해 가는 전통중목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은 총 36명의 동호인들이 출전한 궁도 종목에서 생활분야 개인전에서 박정규가 2위, 임재숙이 3위를 차지했고, 전문분야에서 김영훈이 장려상을 받았다. 시생활체육 동호인을 대표해 참가한 대전선수단은 전통 중목 활성화와 지역확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전통중목을 체험했다. 7개 종목 110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한 충남은 씨름에서 명성을 떨쳤다. 충남은 남자 개인전 중년부에 출전한 채희환(홍성군)이 1위에 올랐고, 여자 개인전 대항급에 나선 박신재(논산시)가 3위에 입상하는 등 부진 활약을 펼쳤다. 특히 충남은 이번 대회 국가공공 종목에 5년 전 탈락한 새터민 최만만이 출전해 눈길을 끌었고, 고점여(78·예산군)가 최고령자로 참가해 대회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세환 대전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대전은 충남과 더불어 충청을 대표해 이번 전통중목대회에서 우월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화합의 한 마당을 이끌었다"며 "앞으로 대전에서도 전통과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청주 기자 dclove@ggiibo.com

## '임신 7개월' 서산시청 김윤미 2관왕



임신 7개월의 몸으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격에 출전한 서산시청 김윤미(28)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윤미는 14일 광저우 아오티사격관에서 열린 여자 10m 공기권총 결승전에서 100.3점을 쏘 본선 383점과 함께 484.4점으로 중국의 순치(481.7점), 북한의 조영숙(480.2점)을 물리치고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복이(태평) 임마 김윤미는 앞서 열린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한국 대표팀에서 사상 첫 임산부의 몸으로 2관왕에 오르는 기업을 도왔다. 김윤미는 예선에서 순치에 2점 뒤진 채 결선에 올랐지만 결선에서 100.3점을 명중시켜 96.7점을 쓴 순치를 앞질러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그는 지난해 12월 남편 진 모 씨와 결혼, 현재 임신 7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주 기자



## 이대명 공기권총 '씩쓸이 3관왕'

### 10m·50m·단체전 금

한국 권총의 차세대 대들보 이대명(22·한체대)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공기권총 개인전 우승으로 3관왕에 올랐다. 이대명은 14일 광저우 아오티사격관에서 열린 대회 둘째날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100.8점을 쏘 본선 585점과 함께 685.8점을 기록, 684.5점을 쏜 중국의 배데량 탄종량(585+99.5)을 2위로 밀어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상도는 678.8(580+98.8)로 5위, 진종오는 678.7(581+97.7)로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고 본선 3위였던 북한의 김정수는 679.6(581+98.6)으로 동메달을 딴 비제이쿠마르의 680.4점(579+101.4)에, 8.0점 차이로 4위에 머물렀다. 팀의 막내답지 않은 폭심이 빛이 난 짜릿한 역전승이었다. 전날 50m 권총과 이날 오전 공기권총 단체전 '씩쓸이' 우승의 주역인 이대명은 초반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국 사격의 건판 탄종량에 맞섰다. 출발은 불안했다. 총 10발을 쏘는 결선에서 1번 사대의 탄종량과 3번의 김정수 사이에 선 이대명은 쟁쟁한 선수들과 처음 맞대결을 펼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첫발에서 7.9점을 쏘고 말았다. 하지만 두번째 발에서 탄종량과 나란히 9.9점을 쏜 다음부터는 페이스를 되찾고 상대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탄종량이 9.5-9.6 등으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대명은 꾸준히 10점대를 때렸고 6번째 사격에서 10.5점에 명중시켜 역전에 성공했다. 7번째에서 탄종량이 10.6을 먼저 쏘았지만 이대명도 지지않고 10.5를 기록해 리드를 지켜나갔고 8번째에서 이날 전 결선 출전 선수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8을 꿰뚫었다. 9.8을 기록한 탄종량을 확실히 따돌린 금빛 한방이었다. 이대명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9-10번째를 모두 10점에 맞춰 승리를 굳혔다. 연합뉴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3관왕 이대명

- 출생 1988.9.14
- 소속 한국체육대
- 신장 181cm
- 체중 78kg
- 주요 경력
-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동메달, 50m 소총복사 단체전 은메달
- 2007 허계유니버시티 사격 남자 권총 단체전 금메달, 시드니월드컵사격대회 50m 권총 개인 3위
- 2009 ISSF 맨체스터 월드컵사격대회 10m 공기권총 은메달, 홍콩 동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10m 공기권총 은메달
- 2010 세계사격선수권대회 50m 권총 개인전 은메달, 50m 권총 단체전 금메달, 광저우 아시안 게임 사격 남자 10m 권총 단체전 금메달, 50m 공기 권총 단체전 금메달, 10m 공기 권총 개인전 금메달

## 대전 서구청 김나영 '금보다 값진 동'



대전 유도의 간판스타 서구청 소속 김나영(22)이 지난 13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유도 78kg 이상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김나영은 이날 광저우 화궁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78kg 이상급 3-5위 결정전에서 상대 몽골의 체렌크한드 도르지고토프를 유효승으로 누르고 3위에 올랐다. 김나영은 4강전에서 우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일본의 스기모토 미카에게 허리후리기 유효패를 당해 3-5위전에 나섰다. 3-5위전에서 김나영은 상대를 적극적으로 붙여 붙인 끝에 2개를 빼앗아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2009년 6월 대전시 서구청에 입단한 김나영은 이번 대회 동메달 획득으로 2006년 도하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동메달



을 따냈다. 김나영은 대전시서구청 입단 이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대전 유도의 자력을 전국에 과시했다. 손현미 서구청 감독은 "비록 국민이 바라는 금메달은 아니지만 금보다 값진 동메달인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앞으로의 김나영 선수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청주 기자

## 태극낭자들 '골잔치' 조별리그 베트남전 6-1승



대회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골 잔치를 벌였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4일 중국 광저우대학 스포츠단지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1차전 베트남과 경기에서 6-1로 이겼다. 중국, 베트남, 요르단과 함께 A조에 편성된 한국은 이날 크게 이기면서 조 2위까지 주어지는 4강 진출 티켓에 한 걸음 다가갔다. 한국은 16일 요르단과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부터 여자축구에 출전했지만 아직 메달권에 든 적이 없다. 베트남을 상대로는 2002년 부산에서 4-0, 2006년 도하에서 3-1 등 3개 대회에서 연달아 맞붙어 기분 좋은 3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 장선재 남자 4km 개인추발 '2연패'



한국 남자 사이클의 '대들보' 장선재(26·대한지체공사)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4km 개인추발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장선재는 14일 광저우대학타운 벨로드롬에서 벌어진 남자 4km 개인추발 결승전에서 4분30초298만에 결승선을 통과, 정강득(홍콩) 4분37초543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추발에서 우승했던 장선재는 이로써 2개 대회 연속으로 이 종목에서 우승했다. 아시안게임에서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은 건 한국 남자 사이클 선수는 1966년과 1970년 금메달을 딴 조성환과 1994년 히로시마 대회부터



2010 대전장애인골프협회장배 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유성구 탑골동 파크골프경기장에서 장애인 60명과 비장애인 60명 등 총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제공

## 장애인·비장애인 골프한마당 성료

어울림파크골프대회 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 2명씩 한 조를 이뤄 라운딩하는 경기방법을 채택, 함께 경기를 하며 서로 간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호인대회뿐 아니라, 특별 전국대회를 유치해 대전을 파크골프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주 기자